

김제시, 전통문양 발굴·구축 공모 선정

전국 유일 최종 선정... 문화유산 반영 전통문양 제작·지자체·산업분야 활용 탄력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정보화 전달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도 지역문양 발굴 및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에 치열한 경쟁과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되었다.

지역문양 발굴 및 구축사업은 각 지자체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문화유산 속에 내포된 전통문양을 구축하여, 지자체에서의 활용뿐만 아니라 산업분야에서도 연계·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에 김제시에서는 미륵사상의 성지 금산사의 문화유산과 전국유일 국가 보물로 지정된 김제내아, 새만금의 중심지에서 바라볼 수 있는 망해사 낙조, 하늘과 땅이 맞닿은 김제 지평선 등을 감점으로 내세워 지난 4월 14일 공모에 신청한 바 있다.

김제시는 올해 11월까지 한국문화정보원의 지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전통문양 콘텐츠를 제작,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예정이다.

김제시를 대표하는 전통문양이 구축된 이후에는 보다 효과적으로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릴과 동시에 산업분야에게도 적극 활용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매우 크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김제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 국민이 우리 김제를 소재로 한 전통 문양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과 국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금산사 미륵전



김제 내아



망해사 낙조



김제 지평선

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 국민이 우리 김제를 소재로 한 전통 문양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과 국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한국전통문화 체험으로 '세계 속 한복' 알린다

한국전통문화전당-국립전주박물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버리 기간 공동 기획 추진 협약

(재)한국전통문화전당이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 체험을 위해 국립전주박물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과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직무대리 정상기)은 오는 8월 부안 새만금 일원에서 개최되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버리 대회' 기간 동안 '한복문화체험'을 공동으로 기획,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지난 29일 국립전주박물관 회의실에서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과 정상기 국립전주박물관 관장 직무대리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통 문화체험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복'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버리 대회 기간 동안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복문화 체험을 진행, '세계 속 한복'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전통문화유산 관련 교육·문화



(재)한국전통문화전당이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 체험을 위해 국립전주박물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행사 추진을 위한 전략 공동 구축 △외국인 대상 한복문화체험 공동 운영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예술·체험·전시·행사 콘텐츠 공유 및 활용을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양 기관은 먼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버리 대회가 열리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부안 새

만금 잰버리 야영지 일대에서 '전통문화 포토존'과 '한복문화체험' 등을 공동으로 기획, 추진하기로 했다.

새만금 야영지 일대 뿐 아니라 국립전주박물관 내에서도 영외 활동에 나서는 외국인 잰버리 청소년 대원들을 대상으로 전시 관람은 물론 '한복문화체험' 등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상기 국립전주박물관 관장 직무대리는 "이번 협약이 한복·한식 등 양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콘텐츠의 협력을 통해 한류문화 확산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우리 고유의 복식인 '한복'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국립전주박물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폭을 함께해 기쁘다"며 "전통문화 도시 전주를 찾는 많은 해외 청소년들이 한복을 직접 입고 체험하며 한복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최진숙 명창, 생애 첫 '심청가' 완창무대

국립민속국악원, 8일 판소리 마당 '소리 판 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직무대리 추정규)은 최진숙의 강산제 심청가 완창무대를 오는 8일 판소리 마당 '소리 판 서'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매일 둘째 주 토요일(8월 제외) 오후 3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음헌에서 열리는 판소리 마당 '소리 판' 완창무대는 판소리 완창



공연의 정착과 판소리의 계승·보존, 그리고 판소리 대중화에 힘을 보태고자 2020년부터 시작한 대표적인 기획공연이다.

이번 완창무대의 최진숙(중앙대 외래교수)은 아버지 최영길 명창과 고모할머니인 최난수 명창의 뒤를 따라 소리 기문의 계보를 잇고 있는 소리꾼이자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이다.

고수에는 김규형(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과 유인상(전통음악그룹 판) 대표가 함께 하며, 공연은 전화(063-620-2329) 또는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상담원과 대화), 누리집(https://namwon.gugak.go.kr)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남원=김기투 기자

전북 어울림 창작활동 지원사업 '장애·비장애 예술협업 그룹'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 이하 재단)은 '2023년 전북 어울림 창작활동 지원사업'에 참여 할 장애·비장애 예술협업 모임을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2022 전라북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도내 장애예술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으로 '예술관련 지원예산 부족', '창작물 발표 기회 부족' 등을 답한 실정을 반영하여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촉진을 위해 신규 기획한 사업이다.

도내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비장애 예술협업 10개 그룹을 모집하며, 공동의 창작활동을 위한 그룹별 4백만원 지원 및 안정적 활동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 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으로는 3명 이상의 그룹에서 그룹 구성원 중 2인 이상은 장애인이 참여하여야 하

며, 비장애 예술인을 포함한 그룹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경우 창작활동 발표 기회가 부족해 예술활동 경력 증빙을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그룹 내 전체 구성원 중 1명 이상만 예술활동 경력을 증명하면 된다.

공고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7월 18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oo-iss@jct.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경운 재단 대표이사는 "장애·비장애 예술인들의 창작협업을 통해 도내 장애예술인들의 다양한 창작활동 기회가 확대 제공되기를 바라고, 참여 예술인들에게 예술적 성장과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와 교육문화팀(063-230-7452)에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방방곡곡 문화공감 첫 번째 이야기' 14일 김제서 펼쳐진다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첫 번째 이야기 '열린음악회' 열린음악회 국악신동 김태연&클라무오케스트라&퓨전국악 이희정밴드가 7월 14일 오후 7시 30분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국악 신동 김태연과 클라무 오케스트라와 퓨전국악 이희정밴드의 만남이 클래식과 퓨전국악을 더욱 친숙하고 다가서게 만들며 화려한 조영 및 콘서트장에 온 듯한 무대장치를 꾸며 30인조 오케스트라의 화려한 시작을 알리는 서곡으로 감성적인 곡들과 대중적이고 친숙한 음악들 위주로 준비하여 국악 신동 김태연과 퓨전국악 이희정밴드가 명곡들을 선보인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고 김제시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예술이 주는 기쁨과 문화를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한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한층 즐거운 공연을 준비했다.

관람권 예매는 7월 4일 오전 8시부터 현장에서 김제시민에 한하여 선착순 판매 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